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조각공원 연구

2007年 4月

韓南大學校 大學院

美 術 學 科

白 允 浩

제주 조각공원 연구

指導教授 朴 柄 熙

이 論文을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4月

韓南大學校 大學院

美 術 學 科

白 允 浩

白 允 浩의 碩士 學位論文을 확인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7年 4月

韓南大學校 大學院

감 사 의 글

대학원을 생활을 하며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각에 대한 연구와 삶에 방향에 대해 가장 많이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 홀로 생활을 해보니 학교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깨달았고 또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며 따뜻한 가르침을 주신 박병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지도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에게도 항상 고마움을 표합니다. 뒤에서 언제나 힘을 실어준 동료, 후배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끝으로 힘든 생활에도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목 차

I. 서론	1
II.조각공원의 역사와 특성	3
1. 조각공원의 정의	3
2. 조각공원의 역사	4
3. 조각공원의 특성과 역할	8
III. 조각공원의 조형요소	12
1. 설치 환경의 적합성	12
2. 조형요소의 특성	15
3. 관찰자 위치	17
IV. 제주 조각공원의 소개 및 작품 분석	19
1. 제주 조각공원 소개	19
2. 혼밭광장 입구 작품	22
3. 혼밭광장 작품	25
4. 연못주변 작품	30
5. 사랑의 숲 작품	33
6. 조각광장 작품	36
7. 꽃자왓길 작품	47
V. 결론	54
참고문헌	56

I. 서 론

조각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배경을 보면 우리사회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지면서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 지기 위해 도심에서 벗어난 휴식공간이나 도심 속의 작은 공원들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성되기 시작한 공원들을 좀더 예술성이 있는 문화공원으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조각공원이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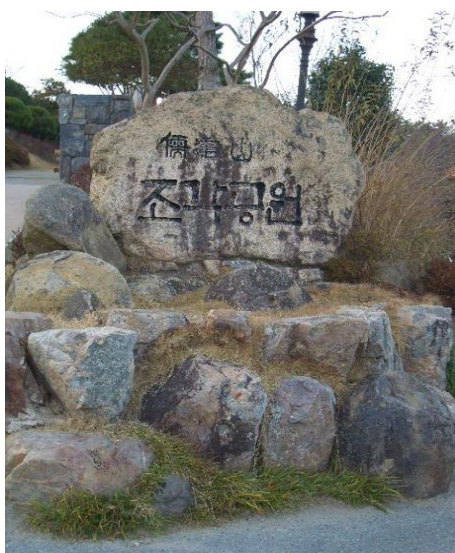


그림 1 유달산 조각공원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조각공원에 직접 찾아가 보면 한적한 공원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인 삶의 수준과 조각공원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설립 하였는가, 공원 안의 작품의 질적 가치를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직은 조각공원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효율적인 운용이 부족한 편이다.

유럽의 많은 조각공원과 조각품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함께 살아왔다. 아직 많은 우리나라의 조각공원은 관광지나 유원

1982년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 (그림1)을 시작으로 하여 제주도의 제주조각공원 및 신천지 미술관등의 옥외 조각 공원이 조성되었다. 1988년 올림픽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공원의 야외조각물이 도시환경 조각물 못지않게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되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공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조각공원이 현재도 꾸준히 조성되고

지처럼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며 , 수학여행 같은 단체여행에 단순한 여행 코스에 지나지 않는 조각공원이 되버린 곳도 많다. 아직은 공원의 운용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재 우리의 조각공원의 실태이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 육체적 피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인 조각공원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해서 우리나라 주요 조각공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조각공원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에게 친숙하고 효율적이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조각공원에 올바른 이해와 가치에 대하여 연구해 보자고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조각공원 중 제주조각공원의 현황을 조사연구 해봄으로서 조각공원이 지닌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전개과정으로 우선 조각공원의 역사와 특성을 조각공원의 정의, 조각공원의 역사, 조각공원의 특성과 역할 등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조각공원의 조형요소를 설치환경의 적합성, 조형요소의 특성, 관찰자의 위치 등으로 분류하여 문헌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며 제주조각공원의 작품분석을 위해 우선 제주조각공원을 간단히 소개하고 혼발광장 입구 작품, 혼발광장 작품, 사랑의 숲 작품, 조각광장 작품, 꽃자왓길 작품, 기타 장소 작품, 으로 나누어 이동하면서 감상하는 것처럼 장소별로 작품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 조각공원의 역사와 특성

1. 조각공원의 정의

일반적인 공원은 조경과정을 거쳐 마련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거나 넓은 공간에서 노닐며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에 비하여 조각공원은 조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실의 공간에 적당한 수량의 조각품을 전시하여 감상하기 위한 야외 전시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각공원은 일반 공원의 동적인 기능을 대부분 배제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각품을 잘 배치하여 관람객의 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휴식과 예술품 감상의 안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닌 이상적인 공공 장소이다.

일반적으로 조각과 공원의 관계를 조각품의 특성을 위주로 한 전시방법으로 보아 단순히 조각품의 전시를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조각을 위한 고원’, 공원이 지니는 주변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전시될 조각품의 성격을 정하여 전시하는 ‘공원을 위한 조각’, 그리고 특별한 장소를 위해 조각과 공원이 함께 구상되거나 설계되는 방법으로 ‘조각적 공원’ 또는 ‘공원적 조각’으로 나누기도 한다.¹⁾

조각공원은 삶의 공간 속에 조각품을 배치하여 기존의 실내 미술관이 지닌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시키는 장소이다. 조각공원은 여러 시간 동안 잘 조성된 공간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조각품과 함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입체 예술작품인 조각이 지닌 독특한 특징을 깨우쳐 관람객의 미적 안목을 높이기 위해 매우 유용한 경험의 장소이다. 조각공원의 외부공간을 대중과 보다 친숙한 문화공간이나 질 높은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1) 정영선 조각공원의 위상정립과 스페셜 프로그램 환경과 조경 . 제36호 1990 서울출판사 p.47

또한 조각품과 함께 조명, 벤치, 동식물, 분수 등이 어우러진 공간 연출이 가능하여 그 공간 속에 자리잡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 공원에 비하여 정서 순환의 기능을 높여 주는 곳이 조각 공원이다.

2. 조각공원의 역사

오늘날의 야외조각과 성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야외조각의 역사는 선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선사시대의 원시인들은 기념비적인 특성을 지닌 야외조각을 창조했다. 그들 주위에 존재하는 자연의 모습이 무엇이든 창조해 보고 싶은 충동을 자극했고, 변화무쌍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자연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며 원시적 신앙심을 드러내는 기념비적 조각물을 세우도록 했다.



그림 2 빌렌도르프 비너스상



그림 3 �핑크스

선사시대 인류에 의해 제작된 스페인의 알타마라, 프랑스의 라스코

지방의 동굴벽화, [빌렌도르프 비너스상](그림2) 들은 수렵과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으로 보아 조각의 기원은 심미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상징적 기능을 지닌 절대자의 대한 봉사와 예배의 가치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

신을 찬양하고 죽은 자를 추모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부터 야외조각이 창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구라트와 이집트의 기자 지역에 세워진 카프리왕의 피라미드와 그 옆에 세워진 스�핑크스(그림3) 및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다리우스 황제와 크세루크스의 궁전 외벽을 장식한 부조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중 스�핑크스는 오늘날의 야외조각처럼 공공의 미적 취미를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조각이 옥외로 진출하였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고대의 조각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의 영생 불멸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의 야외조각은 신전을 장식하면서 종교적,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 페르가몬의 제우스 제단에 그리스 조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스인들의 신에 대한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염원은 신전의 외부 장식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리스 조각의 용도와 기능은 순수한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조각과 분명히 다르며 전시의 방식 또한 현대와 달랐다고 할지라도 조각상을 대중에게 공개한 측면에서는 기념조각의 새로운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야외조각을 논의할 때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이 조각이 지닌 기념비성인데, 매우 현실적인 감각과 취향을 지닌 로마인은 조각의 기념비성을 통치이념과 결부시켜 조각을 신전으로부터 광장으로 이끌어 내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그림4), 트라야누스황제의 원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기마상(그림5) 등의 그 예이다.

중세 암흑기에는 야외 조각이 제작되지 못하였다. 쿠트하임은 “기

2) 최태만 환경과 조경 제137호 서울 서울출판사. 환경과 조경. 1999 p.101

넘비적인 조각의 부활은 대성당 건축이 건설된 시기에 성취 되었



그림 4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



그림 5 황제의 기마상

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³⁾ 이 시기의 야외조각은 종교적, 상징적 기능과 함께 교훈적, 교육적인 기능을 지니며 대성당입구에 성경 속의 인물이나 왕, 상징 등을 제작하는 정도였다.

조각이 건축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 예술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부흥과 함께 성장한 인본주의의 영향이다. 르네상스시대에 시민을 위한 공공장소에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공원의 조성 및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야외조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시대의 조각은 거의 인물상 중심으로 인간의 영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축양식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나 중세 건축과 달리 건축의 일부분이 아닌 순수하게 미술품을 장식물로 첨가시키게 되었다. 도나텔로, 1386~1466 [성 게오르기우스], 미켈란젤로, 1475~1564의 [다비드](그림7), [모세] 등이 이런 특징을 나타낸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영웅을 기념하는 기마 인물상으로 도나텔로의[갓타멜라타 의 기마상] , 베로키오, 1435~1488와 알렉산드로 레오파르의 공동작인 [콜레오니의 기마상](그림6) 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3) F.A.Gutheim, Civic Monumentar Sculpture. Magazine of August 1933 p.371-378,



그림 6 콜레오니의 (기마상)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들어 오면서 조각은 우의적, 신화적, 상징적인 의미로부터 벗어나 광장이나 시장, 정원, 분수 등의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에 있는 베르니니, 1598~1680가 제작한 [4대강의 분수] 를 들

수 있는데 야외조각의 정점에 이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로코코 시대로 넘어 오면서 베르사이유 궁전의 야외 정원인 [아폴로의 숲] 에 세운 [아폴로와 님프], [물의화원] 에 세운 [로마인] 등은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공개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념비적인 조각과 달리 심미적 차원에서 공공에게 개방된 것으로 오늘날의 조각공원의 조각물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시작되면서 야외조각이 더욱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1948년 영국의 헨리무어가 [3인 입상] 을 바테르시아 공원에 설치한 것을 계기로 조각가들은 그

들의 발표장을 화랑이나 실내 미술관으로부터 야외로 넓히게 되었고, 여기서 조각공원이 시작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댕의

모뉴먼트 작품에 크고 작은 군상들의 자율적인 포즈와 작품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야외조각이 새롭게 주목받게 된다.

1948~1977년까지 바테르시아 공원과 홀란드 공원 등 영국의 공원에서 3년마다 5월부터 9월까지 정기적인 영국의 대표조각가들에 의한 야외 조각전이 열렸는데 이러한 조각전이 영국의 조각공원과 세계의 조각공원을 발달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제 시민사회의 형성과 도시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기념조각으로부터 벗어난 심미적이며 환경 장식적인 조각공원이 출현하게 되었다. 1950년 벨기에의 미들 하임 조각공원, 1958년 덴마크 루이지애나 미술관 , 1960년 미국의 스톤킹 아트센터, 1969년 일본의 하코네 조각공원, 1977년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등이 차례로 생겨나게 되었다.

3. 조각공원의 특성과 역할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실용성에 기초하여 인간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조각은 설치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조각품이라 해도 야외조각으로서 합당성을 지니지 못했다면, 이미 그것은 야외조각이 아니며 무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야외조각은 일반 순수조각과 달리 넓은 공간에 설치되므로 많은 제한요소가 내포하게 된다.

첫째, 재료의 특이성이다. 그것은 기상의 변화와 물리적, 화학적인 제반변화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이 재료 속에 잠재된 미를 발굴하는 기법은 바로 창조적 작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공간에 있어서 재료와 기법과 작가의 시각의식이 쾌적하게 조소적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가키의 특수 환경으로 승화될 때에 높은 질의 미적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조각에서는 더구나 야외공간에서 활용되는 재료의 특성이 뚜렷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과 기법이 바로 형태언어의 실존적 또는 현상적 만남의 대상이 되는

시각 세계에서 표현의도를 지배하며 유기적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부한 재료와 다양한 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실험적 체험과 끊임없는 추구로써 적절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독창적인 기법을 개발하여 조형의식이나 행동을 자기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공간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에 따라 기후의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는 내후성이 문제가 된다. 강도와 경도는 물론 건습, 온냉, 동해, 마모, 내충격성, 내식성, 기계 가공성, 화학작용 등에 대하여 저항하는 성질이 강해서 풍화작용이나 폭풍우, 태풍, 등의 외력에 파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내용의 다양성이다. 과거에는 인물이나 사건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일이 많았으나 오늘날은 다양한 내용의 개성 있는 구상 작품이나 여러 경향의 추상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셋째,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형태의 다양성이다.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개발된 세계에서 조각가들의 역할 중의 하나는 예술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하도록 하고 생활의 미적 수준을 높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조형성의 표현으로 현대적 작품에서도 보고 느껴왔던 종교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전달하여야 한다. 4)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적 욕구가 있다. 이 내면적 필연성에는 최대한의 효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는 외면적 필연성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 욕구에 상응하고 객관화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내면적인 평형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형태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단순성을 들 수 있다. 현대도시는 인구가 과밀 되고 과학기

4) Margaret .A. Robinette, 최윤식, 배기철 역, 야외조각(Out, door Sculpture) 서울, 집문사,1988 p.23

술이 진보된 산업사회로서 과잉된 정보의 도시환경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다중,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대의 각종 기계문명의 범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보와 매체,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 복잡한 현실상황을 필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공 환경에서 명료하고 단순하며 새로운 의식의 시각 형태를 요구하게 만들었고 가치 평가의 기준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가 가져온 필연적인 현상이다.

다섯째, 실용성을 들 수 있다. 공원조각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제 만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원의 조각품은 시설 및 관리 등의 난점을 이유로 작품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해 시민의 접근을 막고 있다. 실용성 측면에서는 크게 역행되고 있다.

여섯째, 기능적인 면을 들 수 있다. 이집트 왕조시대 이전의 민신의 기념비적 조각상을 처음 세우기 시작한 이래로 칼데의 홍학에 이르기 까지 야외조각의 기능은 상당히 다양해졌다.

야외조각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많은 대중이 접근함으로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예술이 대중적이 되려고 절대로 애써서는 안되며 대중이 자신들 스스로를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⁵⁾ 는 것에서 보듯이 조각과 환경의 제반구조를 예술의 내적 질서에 폐쇄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개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조각 작품은 점차적으로 야외로 등장하면서 공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실용적, 정서적 의미인 동시에 공원 환경 조성까지도 함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원에 놓인 조각품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인의 예술적 감각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함께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반적인 조각이 갖지 못하는 특수한 기능을 띠게 되며, 이 기능은 타 요소 보다 강하게 시각적, 정서적으로 대두되게 되므로 공원조각이 공원조형에 참여하

5) 공간,서울, 공간사, 1991, 7월호, p.126

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조각은 도시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단순히 보고 즐기는 감상으로 서만의 조각이 아니라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같이 호흡하고 생성, 발전되어가는 요소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오늘날 공원조각의 특이한 기능은 야외 교육의 교과서적 역할로서 기념비적 조각이나 추상화 및 비추상화 조각품이 공원에 등장함으로써 예술이 단지 공원의 장식물이나 미적 가치에만 역점을 주는 것이 아닌 예술품도 충분히 심리적, 철학적등 인문 사회과학 제 분야의 훌륭한 교과서적 역할을 담당했다.

조각공원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순수조각의 기능적인 면과 작가의 개성을 살려 완벽한 규모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된 공원 공간과 함께 조각에 의한 독창적인 조형작업에 의하여 심미적 공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조형의 요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작가의 재질과 예술성을 밀받침 할 수 있는 재정도움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Ⅲ. 조각공원의 조형요소

공원 조각의 계획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는 조각 자체와 설치 환경이다. 공원 조각이 갖는 조형요소로는 설치 환경의 적합성, 조형요소 특성, 관찰자의 위치 등을 들 수 있다.

1. 설치 환경의 적합성

하나의 조각품 혹은 조각품이 특수한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설치 환경의 전체적인 조직에 적합하게 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제에 있어서 종교적인 양식을 띠고 있는 야외 조각의 출발은 상징성을 강하게 포함하고 있는 거석기념물, 이정표, 장승, 불교전래기 이후 야외불상으로서 이조시대의 석탑이 이에 속하였다.

1930년대 이후 근대의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을 주제로 하는 야외 조각은 광장이나 로터리, 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 조각 작품들로써 모적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특정한 인간, 사물, 관념에 대한 재현적 추구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미적 관념의 시각적 표현 이외에는 어떠한 주제도 없는 것이다.

설치 환경은 추상 또는 구상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주제는 어떠한 메시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류인의 작품 (퇴성) (그림8)과 같이 작품은 조각 공원에서는 수용되지만 수도원이나 사찰 같은 곳에서는 적당치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 추상 예술이 특정한 환경의 강조나 가치를 높이는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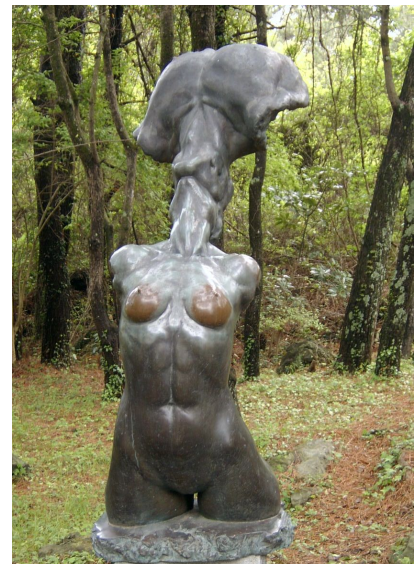


그림 8 류인 (퇴성)

여하고 있으며 선정된 작품이 구상적인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주제를 가져야 한다. 난해한 주제보다는 단순하지만 강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야외 조각은 놓여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그 의미, 기능, 형태 등이 달라 지게 된다. 다양한 공간적 상황아래 조각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장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공간과의 종합적 인상의 관점에서 설계 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내 조각의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품을 보게 되지만, 야외조각은 주변 환경이 조각 작품과 같이 작품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외부환경에서 조각 작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식물, 햇볕과 같은 자연 요소와 시점, 관찰자가 경험하게 되는 외관 등을 들 수 있다. 조각 작품을 공원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경, 전경, 틀, 좌대, 조명과 같은 요소들이 요구된다.

배경을 보면 “형태주의 심리학이 그림과 바탕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훌륭한 그림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을 받쳐주는 바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⁶⁾

조각 작품은 이동하면서 관찰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배경도 달라진다. 주로 배경은 주의 환경의 시각적 요소인 자연물(나무, 물, 산, 하늘 등의 기타 자연물) 또는 인공 건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복합체로 구성된다. 특히 배경은 조각 작품에 대한 접근성 이외에 시각의 부분적인 방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조각 작품이 최고의 상태로 표현 될 수 있도록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

또한 전경은 조각 작품 앞의 경관 즉 전경도 배경 못지않게 중요한데, 전경은 배경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전경을 통해 관찰자는 또 다른 느낌을 조정한다.

6) 강철기, 환경과 조각, 도서출판대우,1991, p.65

조각 작품이 시각적으로 어떤 틀의 역할을 하는 요소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 미적 가치는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전경과 배경은 틀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는데, 틀은 조각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와 관계가 깊다. 틀은 작품 주변의 경계를 나타내 주기도 하나 시각적으로 탁 트인 넓은 공원 같은 곳에서는 틀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특히 현대 조각에서는 조각 작품을 투시형으로 구성하여 조각자체로 시각적 틀을 형성하고 조각 내부로 보이는 경관의 극적 효과를 도모하는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⁷⁾

공원조각에서 좌대의 기능은 그 위에 놓여지는 조각 작품을 돋보이게 하여 조각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상징성을 뚜렷이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조각에서는 고담적인 형식으로부터 탈피, 작품 스케일의 확대 등의 여러 이유로 조각 작품에 좌대를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조각 작품과 좌대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좌대는 조각의 미적인 특질을 상실 할 수도 있다.

빛은 인간이 환경과 관계를 갖게 되는 주요한 매개체로 가장 중요한 형태부여의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태양의 이동방향 및 그림자 위치는 공원조각의 위치선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조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한다면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설치에 의해서 조명을 만들어서 미치는 인공조명과 자연에 의존하여 태양의 빛을 이용하는 자연 조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빛은 작품과 공간을 들어내 주변 목적은 조각과 공간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낮에 활동하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빛이란 모든 활동을 위한 조건이 되고, 또한 사물을 보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이며, 다른 존재를 활성화 하는 힘, 열의 상대역이다.”⁸⁾

딱딱한 고체 덩어리인 조각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생기 있는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빛의 이용이 효과적으로 남쪽을 향하게

7) 상계서, p.69

8) 문영수, 환경조각과 공간조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88, p.33.

설치하는 것이 원만한 방향이며 빛은 야외 조각 작품에 있어서 형태나, 질감, 양감, 밀도 등 조각의 특질을 강조하거나 변형시키므로 빛의 방향이나 양등을 충분히 인식 한 뒤에 설치 하는게 바람직하다. 공원의 경우 자연 조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태양 빛의 양이나 이동성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형요소의 특성

공원 조각품의 크기와 규모는 설치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작품이 놓이게 되는 공간 사이에 시각적으로 적당한 스케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조화 현상이 생기거나 매우 빈곤한 시각 현상을 연출하게 된다. 즉 조각이 놓이는 공간에 비해 조각 작품의 규모가 너무 왜소한 경우 조각 작품의 의미는 퇴색하여 그 효과는 미약해지고 반면 조각 작품이 그 주변 공간을 압도할 경우에는, 시각적인 거부감이 생기고 공원의 이용자들은 심리적으로 압도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야외 조각의 크기와 규모는 그것이 놓여지는 주변공간의 크기와 성격의 상호연관 하에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념비적 조형물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각 작품의 크기와 규모는 인간적 척도를 사용함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스케일감 부여는 조각 작품과 공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찰자의 눈높이, 조망각도, 방향등도 중요하다. 보편적인 조각물 산출방법을 보면 “조각물 높이는 주변 장애물의 높이에 반비례하고 시각거리와는 정비례 한다”⁹⁾ 는 표준치 산출방법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형태는 구조적이며 3차원적 측면을 가르키는데 조각 작품에 있어서 형태의 다양화는 무한하다. 야외조각은 주위 환경 복잡성을 탈피하고 단순한 형태와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충분한 형태의 과정이나 명확한 작품의 윤곽선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김영중, 2000년대 서울시계획, 서울: 김영중 조형연구소, 1977, p.22.

또한 작품의 색채 선택에 있어서는 작가의 주관성이나 개성을 살리기 보다는 공원에 어울릴 수 있는 색상과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선명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위의 작품(그림 9)은 철재 작품으로 강한 색채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것 외에도 공원에서 재빨리 주위를 끄는데 특히 인상적인 작품이다.



그림 9 제주 조각공원

야외 조각의 재료의 선택은 기상의 변화와 물리적, 화학적 제반 변화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나 소재는 조각의 형태, 질감, 색, 내구성 등에 큰 영향을 준다. 기존의 전통적인 재료로는 돌, 콘크리트, 나무, 브론즈등이며 새로운 소재로써 유리, 신종금속, 각종 플라스틱, 화학 합성물, 직물, Laser광선 등을 들 수 있다. 공원 조각에 알맞은 재료로는 돌이나 콘크리트, 금속 등이 적당한데 그 이유로는 내구



그림 10 지평선 “강태성”

성이 뛰어나고 풍화작용에 대해서 강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위 사진 작품처럼(그림10) 재료들은 고유한 자연색 그대로 사용되거나 여러 외부조건에 견뎌야 하므로 내구성 및 지속성을 보완키 위하여 도색을 하

는 등 다양한 표면처리가 행해진다.¹⁰⁾

<표 I> 견고성 등급: ○ △ ×, 밀 도 등급: ○ △ ×

재료류	재료내용	색	질 감	견고성	밀 도
석 재	화강석	회색, 적회	무광, 과목	○	△
	대리석	백색, 백회	유광, 우아	△	○
	오 석	암흑색	유, 무광, 과목	○	○
철 재	강 철	광회색	유광, 경쾌	○	○
	알루미늄	광회색	유광, 경쾌	○△	○
	녹슨쇠	암적색	무광, 침착	○	○△
콘크리트	콘크리트	회색	무광, 강직	○	△
청 동	청 동	청, 적색	무광, 강직	○	○

3. 관찰자 위치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야외조각의 인상은 다르게 느껴진다. 광장이나 공원과 같이 사방이 트인 곳에 설치되는 조각과 고층건물로 둘러싸인 위요된 공간에 설치되는 야외조각은 조각 작품으로 향한 시선의 각도 및 방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태나 규모 등이 다르게 계획되어야 한다.

<표Ⅱ> 표현 경향과 시각적 기준¹¹⁾

표현에 있어서 강한 경향	표현에 있어서 약한 경향
큰 형태	작은 형태
볼륨, 매스가 풍부한 형태	볼륨, 매스가 빈약한 형태
명확한 색채	불명확한 색채
온화한 색채	냉랭한 색채
삼원색, 흰색, 검정색	기타의 색(중간색)
대각선 구조	수직 또는 수평적 구조

10) 상계서, p.21.

11) 조경학 한국조경학회 서울 출판사, 1987,p.41.

거친 질감	섬세하고 부드러운 질감
반사되는 질감	빛을 흡수하는 질감
극단적인 대비	유사한 대비
인접되어있는 상태	원거리에 놓여있는 상태
동적인 상태	고정된 상태

독일학자 마르테스는 대상의 전체적인 미적 감명은 눈이 닿을 수 있는 범위와 거리에 관계한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그에 의하며 대상물의 시각이 45° (거리:높이 = 1:1) 인 경우에는 대상물 개개의 관상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조각 작품의 시각이 45° 인 경우 즉 관찰자가 조각 작품의 높이만큼의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조각 작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함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만약 관찰자가 조각 작품의 높이보다 가깝게 위치할 경우에는 조각 작품을 감상한다는 느낌 보다는 조각 작품의 높이에 의한 시각적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27° (거리:높이=2:1) 인 경우는 대상물과 주위의 전체적인 조망은 되나 주변의 위요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하였고, 12° (거리:높이=4:1) 인 경우는 위요감의 소실과 함께 대상물과 주변 환경이 모두 하나로 뭉뚱그려져 그림과 같은 회화적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야외 조각과 관찰자 간의 이상적인 거리는 조각품 높이의 2배 정도가 되면 야외 조각 설치 시 주관찰자의 위치를 조각 작품 높이의 2배 정도의 지점으로 감상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제요소중 어느 하나에 의한 독단적인 설치는 매우 위험한 방법일수 있으므로 혼용된 설치를 하여 공원조각이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하는 곳이라 한다면 그것에 부합되는 제품 제작 및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원조각은 예술로서의 미와 공원으로로서의 특수성과 실용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일된 효과적인 배치가 될 수 있다.

12) 강철기, 전계서, p.75-76

IV. 제주 조각공원의 소개 및 작품 분석

1. 제주 조각공원 소개

1) 설립목적

제주도는 수려한 자연(그림11) 경관과 독특한 고유의 민속, 언어, 남국적인 기후 등으로 국내 외에 널리 알려진 관광지이다. 이러한 제주도에 자연과 예술과 인간과의 만남의 공간을 주제로 하는 종합문화 예술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 예술의 진흥, 수준 높은 국민 문화 향상,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갖음과 동시에 국내외의 조각을 비롯한 미술품



그림 11 제주도 풍경(주상절리)

을 전시하고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를 꾀하며 구체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발전 시며 후세에 기리 남기고 지방 문화 예술을 활성화 하여 건전한 문화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제주 문화 예술 및 관광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정서 순환과 문화 예술 교육에 이바지 하는 종합 문화 예술센터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

2) 위치 규모

제주 조각공원은 1987년 10월 2일에 문을 열었고 제주 조각공원의 위치는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그림 12 제주조각공원 위치지도

415,675m² 약 125,741평에 규모를 가지고 있다.

3) 전시내용

제주조각공원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은 규모에 걸맞게 질과량, 수준면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7

명의 작가 자문위원 [강태성, 김경화, 김영중, 문기선, 민복진, 최기원, 최만린] 을 구성 국전, 전국 규모 민전에서 특선이상을 차지한 국내 정상급의 원로, 중진, 중견작가 및 신예작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참여 109명이 출품하여 현재 160여점 [재료별 : 청동작품 80여점, 석재 및 기타작품 70여점]의 구상, 비구상등의 작품이 표현성과 다양화에 중점을 두어 주변경관과 조화 있게 전시됨으로서 야외조각전시의 대장관을 이루고 있다.

4) 주요 시설

- | | |
|----------|------------|
| ① 주차장 | [추후예정시설] |
| ② 정문관 | ① 제 1연구관 |
| ③ 한발광장 | ② 종합공방 |
| ④ 제 1휴게소 | ③ 미술관 |
| ⑤ 연못 | ④ 야영장 |
| ⑥ 전망대 | ⑤ 야외 공연장 |
| ⑦ 돌샘식당 | ⑥ 제 2연구관 |
| ⑧ 조각광장 | ⑦ 작가의 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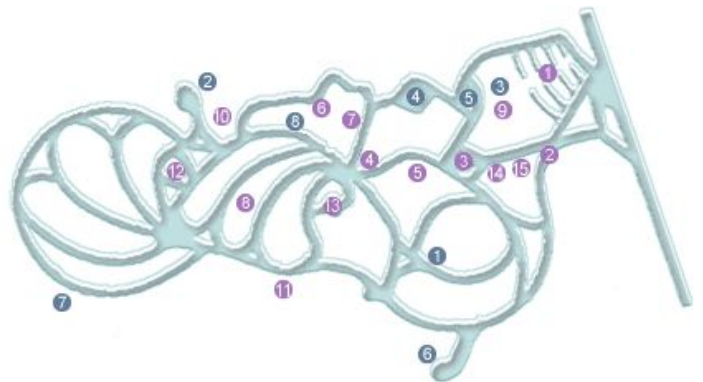


그림 13 제주조각공원 지도

9 원형광장 8 주막

10 제 2휴게소

11 꽃자왓길

12 사랑의 숲

13 일렛당

14 레스토랑

15 삼각수정탑



그림 14 해라녀

주요시설 특징을 보면 삼각수정탑은 산방성과 사굴 조경이 비춰지는 시각적 연출을 하였고 원형광장은 현대 조각 공모전 역대 우수상 작품전시를 한다.

혼밭광장은 중국 해남성 정부기증 “해라녀”(그림14)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일렛당이란 무병장수를 비는 제주도 속신앙의 민속제당이 있다.

2. 혼발광장 입구 작품

제주 조각공원의 입구를 지나면 원형광장이 나온다. 이곳은 현대 조각 공모전이나 역대 국전 지역미술대전에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다. 처음으로 조각공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혼발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골목이다. 혼발광장의 특징은 장소가 좁은 골목으로 되어서 작은 작품들로 전시 되어 있으며 주위 배경이 돌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처음으로 소개할 그림 15의 작품은 이용덕의 (생의 명상-여름) 을 볼수 있다. 이작품의 재료는 브론즈 작품으로 인체표현을 현실성 있고 성실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이작품은 제주 조각공원에서 가장 처음 맞는 구상 작품으로 규모는 1.2*0.8*1.7의 작품으로 작은 작품이다. 무더운 여름을 연상케 하며 인체에 표정과 옷 주름에서 땀을 흠뻑 흘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림 15 생의명상-여름“이용덕”

그림16 작품은 김신옥의(MATURITY) 이라는 작품으로 재료를 애석을 썼다. 크기는 1.0*0.3*0.7의 작품으로 매우 작은 작품이다. 돌을 매끄럽게 갈아서 여체에 풍만함을 잘 묘사한 작품이다. 작품 대를 너무 낮게 만들어 작품을 감상하는데 불편함을 주며 주위 환경과 조화에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림 16MATURITY “김신옥”



그림 17 사람들 “심완식”

그림 17의 작품은 작은 작품으로 심완식의(사람들) 이라는 작품이다 재료는 브론즈를 사용하였고 크기는 1.2*0.5*0.4 이다. 묘사 보다는 분위기와 느낌을 중요시한 작품으로 거친 언덕위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작가에 표현 느낌을 충분히 나타낸 작품이다.

그림 18의 작품은 한인성의 정이란 작품이다.

작품 규격은 0.6*0.5*2.1로 브론즈로 된 비구상 작이다. 이작품은 크기가 아쉬웠던 작품이다. 높이가 2미터가 아니라 20미터 였으며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하였다. 대형조형물을 연상케 한다.



그림 18 정 “한인성”

그림19 작품은 김영원의 (중력. 무중력) 이란 작품이다. 재료는 브론즈 이며 규격은 0.53*0.68*2.30이다. 아슬아슬 서있는 인체는 정교하게 묘사 되어져 있다. 마른 사람의 몸을 잘 표현 하였다.



그림 19 중력.무중력 “김영원”

3. 혼발광장 작품

혼발광장 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작품을 감상하고 나면 골목이 끝나면서 확트인 광장이 나온다. 혼발광장은 원형으로 광장 둘레를 장벽과 자연물들로 감싸고 있다. 둘레 곳곳에 규격이 큰 작품들로 놓여 있으며 중앙에 잔디밭이 깔려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고 있다. 혼발광장의 특징은 큰 원형공원으로 작품들이 가운데 큰 작품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20의 작품은 이일호의 (불새) 라는 작품이다. 재료는 브론즈이고 규격은 5.05*0.8*0.9이다.

이작품은 사랑을 통해 한순간의 열정을 불태우며 정열적으로 타오르다가 사라지는 불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이 하늘로 승화되어 오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려 하였는데 그러한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 인체의 일부분만을 과장해서 나타내거나 어떤 부분을 생략하여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보다는 꿈속에서 초현실적으로 느끼는 인물의 모습처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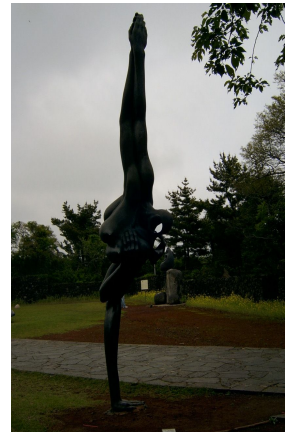


그림 20 불새“이일호”



그림 21 심장87“정현도”

그림 21의 작품은 정현도의 (심장 87)이란 작품이다. 재료는 화강석으로 규격은 0.9*0.4*2.5이다.

이작품은 터치가 밑에서부터 위로 점점 작아지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사막의 모래와 바다의 잔잔한 파도를 연상시키게 한다.



그림 22 해변 “김창희”

그림 22의 작품은 김창희의(해변) 이라는 작품이다.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2.2*0.9*3.3 이다.

단신의 여성을 수평선위에 와형으로 놓고 정적인 여성의 곡선미를 입체적 공간구성에 조화시키면서 선의 리듬의 연개성과 양감의 리

듬을 주관적 조형감각으로 추구, 간결하면서도 탄력 있는 선의 리듬속에 변화 있는 양감의 공존으로 생명력 있다. 인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조형화하였다.

그림 23은 심정수의 (사랑의노래) 란 작품이다.

재료는 화강석이며 규격은 0.9*0.8*2.7이다. 이 작품은 부드러운 천을 감싼 여인의 모습을 돌로 잘 표현된 작품으로 두 여인이 하늘을 향하며 무언가를 기원하며 바람을 맞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23 사랑의노래
“심정수”



그림 24 표출 “김창규”

그림 24는 김창규의 (표출)이라는 작품이다. 재료는 스텐네스, F.R.P 로 규격은 2.22*0.48*1.08이다.

형식상으로는 매우 엄격한 구성과 함께 미니멀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특히 좌대를 없애어 지면과의 호흡을 꾀하고 있다.

그림 25은 김문경의 (산Ⅱ)이란 작품이다. 재료는 화강석이며 규격은 2.1*1.5*0.8이다. 자연의 산을 최대한 단순화 시키고 산허리를 사선으로 파내 노란색을 조형적으로 넣음으로써 힘찬 동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25 산Ⅱ “김문경”



그림 26 黑犬 “김인경”
장아름다운 상태로 접근하고 있다.

그림 26의 작품은 김인경의(黑犬)이다. 재료는 화강석이며 규격은 1.05*0.06*3.0이다. 이 작품은 혼발광장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높이로 시원한 장면을 연출한다. 서있는 여인의 우아한 모습을 작가가 반추상적으로 변형, 인체의 중간부분의 구체적인형체는 생략하거나 극히 단순화시켜 심지어 절반 이상을 오목하게 파내어 없앴으로서 육중한 석조아취 구조물과 대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인이 가진 곡선미를 가

그림 27의 작품은 박충흠의(무제)라는 작품이며 재료는 대리석이고 규격은 0.4*0.3*1.01이다. 이작품도 그림 26 김문경의 (산Ⅱ)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 산처럼 볼록 솟은 돌들이 공원 잔디밭 곳곳을 매우며 아기자기한 조형적 느낌을 준다. 조각공원과 어울려져 일체감을 준다.



그림 27 무제 “박충흠”

그림 28은 최만린의 (태)란 작품이다.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0.7*0.5*0.37$ 이다. 태는 원초적인 상태의 생명체의 형상이며 또한 무한한 생태적 발전을 느껴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미지의 가변적 형태와 그에 따르는 발전적인 무한한 공간성을 시사해 주는 조형인 것이다. 이러한 조형관은 조형을 공간의 척도 및 형태로 보는 원리를 품고 있으며 이점을 조형세계의 주축으로 한다.



그림 28 태 “최만린”



그림 29 화합 “강정식”

그림29의 작품은 강정식의 (화합)이란 작품이다.

재료는 화강석이며 규격은 $1.6*0.4*0.8$ 이다

새(鳥)를 조형화하여 화합 전진하는 모습으로 자애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화살표를 여러개를 겹쳐 재미있는 형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4. 연못 주변 작품

혼밭 광장을 나오면 연못이 보인다. 연못에는 다양한 물고기와 오리들이 노닐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연못 옆으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매점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이다. 이곳 주변에 작품들이 놓여져 있는데 나무 그늘 속이라 주변이 어두운 편이다. 특징은 연못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낚시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작품들이 있다.



그림 30 동심 “신석필”

그림 30 은 신석필의 (동심)이라는 작품이다. 재료는 대리석이며 규격은 $1.5 \times 0.44 \times 2.2$ 이다. 이 작품은 어린 꼬마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행동을 돌로 표현한 작품으로 아이들의 묘사와 나무의 묘사가 정교하게 잘 나타난 작품이다.

그림 31의 작품은 김창규의(정반합-Ⅲ)작품이다. 재료는 스텐레스, F.R.P 이고 규격은 $2.23 \times 0.4 \times 2.33$ 에 비교적 큰 작품이다. 이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작품과 함께 사진을 찍어간다. F.R.P를 사용하였지만 화강석 느낌이 많이 난다. 이작품 역시 그림24와 같이 좌대를 없애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그림 32 정반합-Ⅲ “김창규”



그림 31 팔월의 문 “오의석”

그림 32의 작품은 오의석의(팔월의 문) 이란 작품이다. 재료는 화강석이며 규격은 1.1*0.45*2.1 이다.

이 연못 옆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이 어두운 편이다. 이작품은 어두운 장소에 위치해 있어 더욱 무거운 느낌을 받았다. 감옥과 같이 갇혀 있는 느낌을 준다. 옆에 거친 터치로 인해 작품에 묵직함을 더 강조한 작품이다.

그림 33의 작품은 윤영자의 (사랑) 이란 작품이다.

재료는 화강석이며

규격은 2.36*2.14*1.09 이다.

작품은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며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듯 한 느낌의 비구상 작품이다. 작품이 뒤에 연못과 조화가 잘 이뤄져 있다. 작은 곡선과 큰 곡선이 뚫려 있는 원이 시원하게 돌에 표현된 작품이다.



그림 33 사랑 “윤영자”



그림 34 분신 “오정옥”

그림 34의 작품은 오종욱의 (분신) 이란 작품으로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1*0.6*1.45이다.

작은 작품이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그냥 지나칠 만한 작품이다. 작품은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지만 작품명에서 말했듯이 한사람이 자신에 분신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다. 돌에 특징을 잘 끌어내 부드럽게 인체를 단순화 시킨 작품이다.

5. 사랑의 숲 작품

연못을 지나면 좌측으로 작품들이 웅기종기 마주보며 있는 숲이 있다. 이곳이 사랑의 숲이다. 숲 속에 작품이 있어 주변 환경은 어둡고 나무 아래 작품이 놓여져 있어 높이가 큰 작품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곳은 구상 작품이 주를 이루었고 남녀에 애정 행각을 묘사한 작품들이 대다수였다. 이름 그대로 사랑의 숲이라 약간은 은밀하고 감추어진 장소인 것 같아 제주 조각공원이 아닌 다른 공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랑의 숲의 특징은 숲 속이라 작품들이 숨겨져 있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그림 35 여성 “류인”
키스를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35의 작품은 류인의 작품으로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1*1*1.6이다. 작품이 사랑의 숲 입구에 설치 되어 있다. 숲이라 주변이 어둡고 트여있지 않아 작은 갤러리를 연상케 한다. 이작품은 과장된 동세와 세밀한 근육표현으로 생동감이 넘쳐났다. 여자에 몸이 근육질에 남자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여자만의 라인을 잘 나타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강렬한 남녀의

그림 36의 작품은 김혜경의 화음이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1.6*1*2.25이다. 무용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성과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지시킴으로서 조형적 형상미를 얻고 있다. 역삼각형의 구조에 뛰어 오르는 듯 한 여자의 포즈가 생의 환희, 승리에 압도된 듯 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일체의 장식을 배제하고 인간 본연의 형상을 전통적인 기법과 터치로 마무리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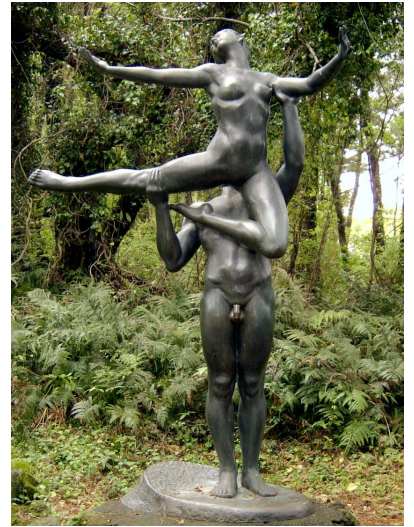


그림 36 화음 “김혜경”



그림 37 산 “김혜경”

그림 37의 작품은 유경원의 (남 여)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화강석이고 규격은 0.9*1.8*1.3이다.

남녀에 성교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하였던 작품이다.

남자와 여자의 표정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자칫 작품이 너무 선정적일 수 있는 작

품이다. 작품을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작품성이 많이 좌우 될 것 같다.

가장 깊은 숲속에 작품이 위치하여 더욱 은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림 38 남 여 “유정원”

그림 38의 작품은 김혜경의 (산)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화강석이며 규격은 2.40*1.60*1.10 이다.

이작품은 남녀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마주보고 이는 구도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 환경과 매우 잘 어울려져 있다.

6. 조각광장의 작품

제주 조각 공원에서 가장 넓고 작품 수가 많은 광장이다. 넓은 잔디밭과 언덕이 펼쳐져 있으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음식점, 일렛당, 연극과 콘서트 같은 각종 이벤트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도 이곳 조각광장에 위치하고 있다. 시원한 분수도 볼수 있는 인공 연못도 있어 주위 경치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곳 광장에 크기가 큰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인체 작품 보다는 비구상 철조 작품과 화강석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조각광장의 특징은 확트인 넓은 공간이라 다양한 크기와 재료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림 39의 작품은 이일호의 (궁전)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3.6*3.2*2.75이다. 비교적 다른 작품들에 비해 덩치가 큰 작품에 속한다.

인체에 얼굴과 가슴, 성기 부분을 비구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육중한 등치만큼 큰 덩어리로만 구성되었다.

그림 39 궁 전 “이일호”

그림 40의 작품은 강태성의

(도약) 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1.7*1*1.5이다.

언덕에 버섯과 같은 브론즈가 핀 듯하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작품으로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식물을 연상케 했다



그림 40 도약 “강태성”



그림 41 Totemporary Garden “이두한”

그림 41의 작품은 이두한의 (Totemporary Garden) 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화강석이며 규격은 3.5*3.0*2.0 이다. 총 4개의 작품이 동산을 이루며 배치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사찰이나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돌탑을 연상케 했다.

그림 42의 작품은 전상범의 (멜로디P)란 작품으로 재료는 철판이다. 규격은 5.8*32*2.4 이다. 철판을 도안하고 단순한 형상으로 잘라 붙임으로써 공간을 분할하여 리듬적 공간을 구성하였다. 노란색은 리듬적 공간을 더욱 울려 퍼지게 하고 있으며, 대자연속에 또 하나의 자연이 싹트고 자라면서 경쾌한 멜로디를 시각적으로 연주하고



그림 42 멜로디P “전상범”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



그림 43 구원 “강관옥”

그림 43은 강관옥의 (구원)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화강석이고 규격은 1.5*1.5*40이다.

불의에 항거하다 수난을 당한 인간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불의가 그치지 않는 한 바르게 살겠다는 인간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양심과 욕망이라는 영원히 상반되는 두명제 사이에 빛

어지는 인간만이 원초적 고통을 사실적인 기법을 구사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44의 작품은 이용덕의 (생의 명상)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1.5*0.8*2.5이다.

문을 연상시키는 두 기둥과 사각면의 구조는 인간현실의 상징으로, 엄격함과 허욕과 공허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된 인간은 삶의 본연에 대한 희구와 번민을 깊이 연상하게 하며, 인생을 통해 내면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려 온몸



그림 44 생의 명상 “이용덕”으로 펼쳐이는 노스텔지어의 깃발을 느끼게 한다.



그림 45 경칩 “계낙영”

그림 45의 작품은 계낙영의 (경칩) 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화강석이며 규격은 1.27*1.27*2.12이다.

우리생활 주변에서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유기적이고 일상적인 형태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형태가 시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리적 특성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돌이라는 표현 모체에 접합시킨 작품으로 자연스럽고 우연스럽게 접힌 듯 한 일상적인 형태가 마치 개구리의 우스꽝스러운 형태를 닮은 듯 한 상징성에서 해학과 우화가 번득인다.

그림 46의 작품은 김선구의 (해의 여신)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2.5*1.5*2.0 이다.

이작품은 요가 하는 여인을 큰 덩어리로 볼륨감을 살려 부드럽고 풍만한 느낌을 나타냈다.

여체에 가장 포인트 부분인 허벅지와 가슴에 그리로 아랫배에 덩어리 표현이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작품이다.



그림 46 해의 여신 “김선구”



그림 47 지평선 “강태성”

그림 47의 작품은 강태성의 (지평선)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화강석이며 규격은 2.5*0.9*1.05 이다.

이 작품은 큰 돌덩이에 구멍 3개가 나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비구상 작품이다. 단순하더라도 보는 방향에 따라 복잡해 보이는 작품이다.

그림 48의 작품은 조성묵의 (메시지 87-17)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1.5*1.2*2.85 이다.

낡은 수도관을 연상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긴 파이프에 쇠가 녹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을 강하고 약하게 잘 조화하였다.



그림 48 메시지 87-17 “조성묵”



그림 49 모든것을 바라며 “진송자”

그림 49의 작품은 진송자의 (모든 것을 바라며)이다. 재료는 브론즈이며 규격은 1.4*0.8*0.45 이다.

꽃향기에 흠뻑 취해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꽃 속에 아름다운 여체가 앉아 있어 주위 배경과 조화가 매우 잘되어 있다. 하지만 작품을 받치고 있는 돌받침이 너무 작아 불안감을 주었다.

그림 50의 작품은 김윤화의 (영접회귀-Ⅲ)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작품의 크기는 0.5*1.4*1.4이다.

날카로운 가시 줄기를 역어놓은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작품은 차갑고 심플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50 영접회귀-Ⅲ “김윤화”



그림 51 개벽 “김형준”

그림 51은 김형준의 (개벽)이란 구상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크기는 1.3*1.2*1.7이다.

달리고 있는 여인들을 표현한 작품으로 3명의 군상이지만 비교적 작은 작품이다. 인체의 사실력이 뛰어난 작품이며 부드러운 움직임을 잘 표현했다.

그림 52의 작품은 민복진의 (모자)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고 크기는 0.75*0.5*1.5이다.

동화속 캐릭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은 작품이다. 어머니와 아들이 손을 잡고 나들이 가는 모습을 나타낸 작품으로 거친 터치가 그대로 보여 강한 덩어리감을 느끼게 한다. 작가의 인체표현력이 재미있는 작품이다.



그림 52 모자 “민복진”



그림 53 가족 “김영중”

그림 53의 작품은 김영중의 (가족)이란 작품이다.

재료는 화강석이며 크기는 1.4*1.6*3.1 이다.

비교적 큰 작품이며 주위 배경과 조화를 잘이룬다.

사회구성원의 기본인 가족이 단결로 뭉쳐지고

공동적인 희망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인물의 세부를 생략하고 단순화시키면서 면이나

덩어리를 시원하게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육중하고 장엄한 느낌을 준다.

그림54의 작품은 황순애의 (영상자아)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대리석이며 작품의 크기는 0.5*1.0*1.85이다.

자신의 얼굴을 대리석에 재해석함으로 나타난 작품이다. 대리석이 부드러움을 느낄수 있다.



그림 54 영상자아 “황순애”



그림 55 소리 “배승현”

그림 55의 작품은 배승현의 (소리) 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고 크기는 1.4*1.3*2.3이다.

이작품은 인체의 단순한 처리로 동화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남녀의 표현을 재미있게 구분지었고 표면 터치로 단순함을 해소 시켰다.

그림 56은 고해숙의 (바람)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크기는 0.4*0.5*1.4이다.

아름다운 여체를 표현한 작품으로 여체에 풍만한 덩어리를 잘 표현했다. 인체에 정밀한 묘사에 비해 얼굴에 묘사가 부족하였다.



그림 56 바람 “고해숙”



그림 57 포즈-86 “이경우”

그림 57 이경우 (포즈-86)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크기는

0.8*0.35*1.75이다.

인체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다. 큰 동세는 없지만 역동적인 포즈를 잘 표현했다. 작품 뒤에 나무가 있어 그늘 밑에 있는 작품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림 58은 이일호의 (대지의 여신)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재주현무암 + 브론즈이고 크기는

현무암 7.7*2.3*3.6

브론즈 0.75*5.0*0.2

이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무속적인 본성에 관심을 갖고 제주도 자연의 특색을 잘 살리기 위하여 현지에서 수집한 현무암을 토속



그림 58 대지의 여신 “이일호”

적인 느낌으로 쌓아 만들어 산방산의 솟구치는 남성적인 힘을 받아들이듯 또는 풍요로운 생산을 주술적으로

기원함을 상징하는 대지의 여신을 상징적으로 어울리게 표현하였다.



그림 59 흐름 “황영애”

그림 59의 작품은 황영애의 (흐름)이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크기는 1.1*0.6*0.8 이다.

큰 덩어리 네 군데에 동그란 원을 뚫어 공간감을 나타냈고 덩어리감을 잘 나타냈다.

그림 60의 작품은 김수현의 (모자상)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크기는 0.43*0.6*1.9 이다.

작품제목이 모자상이라 아들과 어머니야 하는데 어머니와 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작은 인체작품은 남자라 보기엔 너무 여성스러웠다. 작품의 주름표현이 재미있는 작품이다.



그림 60 모자상 “김수현”

7. 꽃자왓길의 작품

"꽃자왓길"이란 제주도 방언으로 흙사 밀림과 같이 나뭇가지와 넝쿨들이 숲을 이룬 길을 말한다. 여름, 신록으로 우거진 이 길을 걸으며 깊은 숲속 조용한 가운데 이 자연과 너무나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뤄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한 조각 작품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꽃자왓길의 특징은 작품들이 크지 않으며 나무숲 사이 속에 숨어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림 61 한 “오세한”

그림 61의 작품은 오세한의 (한)이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화강석이며 크기는 2.0*0.9*0.9이다.

이작품은 큰 구멍이가 꿈틀거리는 듯 한 느낌을 주었다. 꿈은 덩어리의 움직임이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했다. 숲속 가운데 있어 나무 넝쿨들과 조화를 잘 이루었다.

그림 62의 작품은 김승진의 (보호색v)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화강석이고 크기는 1.3*1.1*2.5이다.

돌로 표현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밀하게 조각한 작품이다. 나뭇잎이 감싸고 있는 무늬는 정교한 묘사력을 보여주며 나뭇잎에 사실적 표현은 작품의 재미를 더해 준다.



그림 62 보호색v “김승진”



그림 63 집울 “문인수”

그림 63의 작품은 문인수의 (집울)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철+시멘트이며 크기는 $2.6 \times 0.15 \times 0.5$ 이다.

이작품은 전쟁의 폐허같은 이미지를 줍으며 철과 시멘트에 조화가 우리나라 50-60년대 어려웠던 시절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작품은 확 트인 조각광장 보다 숲속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 원래 이곳에 존재 했었던 느낌을

주었다.

그림 64의 작품은 최효근의 (인간87-2)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화강석이며 크기는 $1.8 \times 1.2 \times 2.5$ 이다.

오랜 역사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선인들이 추구해 왔듯이 인간존재의 상징적 형태를 추구한 조형물이다.



그림 64 인간87-2 “최효근”



그림 65 문 “김영중”

그림 65는 김영중의 (문)이다. 작품의 재료는 철이며 크기는 4.0*1.5*6.2이다.

판이라는 소재가 갖는 평면적이고 단순 명쾌한 특성을 살려 작가의 잠재의식을 이끌어낸 독특한 형태로서 어떻게 보면 기괴한 동물의 형상 같기도 한 초현실적이며, 동시에 관객은 그 속을 넘나들며 한 덩어리가 되는 환경적 조각이다. 작품의 굉장한 크기와 붉은색이 강하게 느낌을 준다.

그림 66의 작품은 배승현의 (귀로) 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크기는 1.4*1.3*2.3 이다.

아이를 업고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은 정감을 들게 한다. 숲속 배경과 조화가 잘 되 있어 동화속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그림 66 귀로 “배승현”



그림 67 어제와 오늘과 내일 “김미숙”

그림 67의 작품은 김미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크기는

1.97*1.5*1.04이다.

인간의 희노애락과 삶의 긴장, 이완, 수축, 인생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삶의 여정을 인체의 골절을 소재로 하여 표현하고 있다. 사선으로 올라간 형상은 삶의 여유, 수직은 삶의 긴장과 분

노, 둥그렇게 뭉쳐진 형상은 삶의 수축, 응집, 사랑을 표현, 전체적인 통일속에 유기적인 형태로 리듬감 있게 제작되었다.

그림 68의 작품은 신동효의 (공간대의)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철과 돌이며 크기는

5.0*1.0*2.0 이다.

돌과 철의 재료의 중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시켜 아슬아슬한 형태로서 조립하고 철봉은 가로로 찢어져 구불어진 위에 얹힘으로써 대위법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그림 68 공간대의 “신동효”

철봉과 돌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조형화시킴으로써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물질에 대한 재인식과 시각적 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현대가 갖는 위기의식에 대한 반영과 인간성 상실을 표현하였다.



그림 69 조우 “김학제”
이 어울릴것 같다.

그림 69의 작품은 김학제의 (조우)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철이며 크기는 $1.0*0.5*0.75$ 이다.

철에 스테인레스 봉을 결합하여 원의 형상을 개성있게 소화 하였다. 배경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고 작품 받침을 돌보다는 철을 사용하는 것

그림 70의 작품은 유용한의 (다이빙)이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화강석이며 크기는 $0.7*0.3*2.0$ 이다.

다이빙하는 사람의 물에 닿은 순간 느껴지는 긴장감을 표현한 것으로, 손의 형상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동적인 느낌을 실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70 다이빙 “유용한”



그림 71 아프며 크는 나무들 “임홍오”

그림 71의 작품은 임홍오의 (아프며 크는 나무들) 이란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크기는 2.0*0.4*0.7 이다.

흑으로 나무의 질감을 정밀하게 표현 하였고 나무를 소재로 하여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었다.

그림 72의 작품은 김영희의 (꿈을 찾습니다) 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재료는 브론즈이며 작품의 크기는 0.8*1.05*1.5이다.

꽃자와길에 몇 개 안되는 구상작품으로 숲속에 숨어있어 보물을 찾는 듯 한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그림 72 꿈을 찾습니다 “김영희”



그림 73 숲 “강동철”

그림 73의 작품은 강동철의 (숲) 이라는 작품이다. 재료는 브론즈이며 크기는 $1.0 \times 1.0 \times 0.76$ 이다.

숲의 울창함을 비구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작은 나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주변환경과 색과 모양이 조화가 잘돼있다.

그림 74의 작품은 이길종의 (여인) 이라는 작품이다. 재료는 브론즈이며 크기는 $2.3 \times 1.0 \times 1$ 이다. 언덕위에서 내려다보는 여인을 표현한 작품이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룬다.



그림 74 여인 “이길종”

V. 결론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예술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큰 도시에는 휴식과 예술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조각공원이 형성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각공원의 역사와 특성을 간략히 살펴 보았고 조각공원의 조형요소와 제주조각공원이란 특정 공원을 소개하고 작품을 분석하였다.

우선 조각공원의 역사와 특성을 보았는데 조각공원 역사에서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선사시대 원시시대부터 기념비적인 야외조각에서부터 시작 되 오늘날 까지 왔음을 알 수 있었고 조각공원의 특성으로 재료의 특성, 내용의 다양성,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형태의 다양성, 단순성, 실용성, 기능성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각공원의 조형요소로 설치환경의 적합성, 조형요소의 특성, 관찰자 위치 등이 조각공원의 형성에 얼마나 중요하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주조각공원의 소개 및 작품분석을 해 보았다.

제주조각공원의 소개에서 설립목적, 위치 규모, 전시내용, 주요시설 등을 설명했고 공원에 위치에 따라 작품들을 자세히 분석했다.

제주조각공원의 처음 들어서면 보이는 혼발 광장 입구는 현대 조각 공모전이나 역대 국전 지역 미술대전에 우수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의 작품의 크기가 작은 작품들이 주를 이룬 것이 이곳 특징이다.

이곳을 지나쳐 혼발 광장에 들어서면 작품들이 원을 형성하며 서로 대화하는 듯 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다. 주로 돌 작품이 많았다. 연못주변광장은 연못과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 많았다.

연못에 낚시 대를 던져놓고 마냥 기다리는 작품이 눈에 가장먼저 들어왔다. 연못광장은 크지는 않지만 아이디어가 좋은 작품들이 많

왔다.

사랑의 숲에서는 사랑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남녀의 형상을 조각으로 표현한 테마가 있는 공원 이었다. 사랑의 숲에서는 다소 선정적인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가장 규모가 큰 조각광장은 철제작품과 돌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제주조각공원의 가장 큰 광장으로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 되어 있어 사람들을 위한 휴게소, 식당, 콘서트장, 다양한 이벤트 공연장등 많은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이다. 이곳은 넓은 잔디위에 작품들이 설치 되어 있어 크기가 작은 작품은 다소 눈에 띄지 않았다.

마지막 장소인 꽃자와 길은 숲 속에 길을 끼고 양옆으로 작품들이 설치 되어있다. 숲 속에 가려져 길을 돌아다니며 작품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이다. 이곳의 작품들은 작은 크기에 돌과 브론즈 작품이 많았으며 숲의 환경과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 많았다.

이렇게 조각공원의 주변환경과 크기에 따라 작품의 재료와 규모 그리고 소재도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야외 조각의 설치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재료의 적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사람들에게 예술과 쉼터를 제공하는 조각공원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도심 곳곳에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곳에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각공원의 올바른 이해와 가치에 대한 연구를 위해 좀 더 다양한 조각공원의 소개와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정영선, 환경과 조경 제36호, 서울출판사, 1990
- 최태만, 환경과 조경 제137호, 서울출판사, 1999
- F.A.Gutheim, Civic Monumentar Scupture, Magazine of August, 1933
- Margaret .A. Robinette, 최윤식, 배기철 역음, 야외조각, 서울 집문사, 1988
- 공간, 서울7월호, 공간사, 1991
- 강철기, 환경과 조각, 도서출판대우, 1991
- 문영수, 환경조각과 공간조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청구 논문, 1988
- 김영중, 2000년대 서울도시계획, 서울:김영중 조형연구소, 1977
- 조경학, 한국조경학회, 서울 출판사, 1987